디지털엑스, 수장 교체… 박현주표 '디지털 금융' 속도 낸다

〈미래에셋그룹 회장〉

오세진 대표, 사임 의사 밝혀
그룹 디지털자산 부문 150조 목표
증권·운용 연계한 토큰화 추진



미래에셋그룹의 디지털 금융 구상을 실행할 디지털엑스가 새 수장을 맞을 전망이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미래에셋그룹의 디지털 금융 구상을 실행할 디지털엑스가 새 수장을 맞을 전망이다. 인수 이후 브랜드를 바꾸고 자본을 확충한 데 이어 오세진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체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현주 회장이 디지털엑스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의 역할을 주문한 만큼 차기 경영진이 그룹의 금융 역량을 어떤 사업으로 연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측은 이달께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엑스 측은 "현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2020년 디지털엑스의 전신인 코빗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말 재선임돼 당초 임기는 2028년 말까지였다. 구체적인 사임 배경과 후임 인선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차기 대표로는 미래에셋그룹 인사가 거론된다.

◆거래소 너머로…박현주 GSO의 다음 수

박 회장은 지난 8월 디지털엑스 임직원 초청 행사에서 "디지털엑스를 미래에셋 3.0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룹 디지털자산 부문을 15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디지털엑스는 2027년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주요 사업 축으로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을 꼽았다. 가상자산 매매 중개에서 나아가 금융·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시장까지 사업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1분기 토큰화 상품 출시를 목표로 기관전용 사모 MMF와 사모채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토큰화는 금융상품 등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통합투자 플랫폼 'MAPS'에서는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법인에서는 디지털채권 발행 등 관련 경험을 쌓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자산운용의 상품 설계·운용 역량과 디지털엑스의 거래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업 상품과 일정은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미래에셋은 인수 이후 경영 기반도 정비해왔다. 올해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약 1414억원에 코빗 지분 97.15%를 확보한 뒤 법인명과 서비스명을 디지털엑스로 변경했다. 약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다.

지난 7월에는 채창선 미래에셋컨설팅 대표와 권범규·이성기 사내이사가 디지털엑스 기타비상무이사로 합류했다. 사무실도 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센터원 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흑자 겨냥…그룹 협업으로 수익 확대 노려

차기 경영진은 사업 확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디지털엑스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약 98억원으로 전년보다 11.9% 늘었다.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약 154억원으로 영업수익을 웃돌았다.

현재는 고객 유입을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8월 24일부터 1년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신규 앱 이용을 유도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수수료가 영업수익 대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확보한 고객을 향후 수익으로 연결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엑스는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112개와 이더리움 800개를 매각하는 계획도 공시했다.

사업 확장에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디지털엑스는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으로 나뉜 시장을 연결하는 '디지털자산 통합 시장거래업' 신설을 제안해왔다. 토큰화한 금융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 취급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는 관련 법과 인허가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매도대금 조기 지급에 반대매매도 단축

거래소,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2028년 증시 결제 단축 목표
개인투자자 영향 분석은 아직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이 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개인투자자와 관련된 손익 분석은 아직 세부 통계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지는 않았다.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브리핑에서 개인투자자의 편익과 위험을 분석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매도대금을 하루 빨리 받는 대신 미수금 납부와 반대매매도 앞당겨지는 만큼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매도대금도 미수금도 하루 빨리

결제주기가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되면 주식을 판 다음 영업일에 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반면 미수거래 투자자의 대금 납부 시한도 다음 영업일로 당겨진다. 미수금 미납에 따른 반대매매는 T+3일에서 T+2일로 빨라진다. 착오매매 정정 시간도 하루 줄어든다.

박 본부장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하루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매수자는 하루 더 빨리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편익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 전체의 결제위험 감소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결제 상태로 남는 기간이 짧아지면 증권사 등이 납입하는 증거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결제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들면 증거금 필요액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환 전에는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낮춰 투자자의 부담을 던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고객 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김희문 한국증권금융 기관금융본부장은 "금리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증권금융의 자금 지원으로 증권사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은 목표"…외국인·업계 준비가 변수

2028년 전환은 확정된 시행일이 아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내년 10월까지 인프라를 개편하고,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준비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테스트를 진행한다.

박 본부장은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외국계도 포함돼 있어 기관별 준비 역량과 여건이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이행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자는 시차와 환전 부담이 크다. 해외 증권사·보관기관·투자자 등 32개사 조사에서는 27개사(84.4%)가 2028년 하반기 이후 전환을 희망했다. 준비 부족 상태에서 전환하면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7개사도 있었다. 다만 거래소는 이들의 지역별 분포나 투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콩의 전환 목표가 2028년 하반기로 연기된 점도 고려됐다. 박 본부장은 "홍콩의 영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같은 권역의 시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체 개편 비용도 아직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산개발·유지보수와 야간 근무 인건비 등이 들지만 회사별 여건이 달라서다. 박 본부장은 "내년 중·하반기 정도에 전체 비용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통합테스트를 수행해야 실제 가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앤트로픽, IPO 이후에도 투기등급 전망

신용등급 우려에 자금조달 부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차입 비용과 투자자 확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2일 외신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블랙스톤이 앤트로픽의 AI 반도체 금융 조달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상장 이후에도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투기등급 상단 수준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랙스톤은 당초 앤트로픽이 연말 이전에 투자적격 등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안내를 반영해 전망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등급으로는 투자적격에 못 미치는 BB급이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적격 등급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기준 BBB- 이상, 무디스 기준 Baa3 이상이다.

블랙스톤은 앤트로픽과 브로드컴의 630억달러 규모 AI 반도체 금융 조달 계획인 '프로젝트 노스스타'의 핵심 투자자다. 이 프로젝트는 앤트로픽이 구글과 브로드컴이 공동 개발한 AI 반도체인 텐서처리장치(TPU)를 1.5기가와트(GW) 규모로 임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420억달러 규모 선순위 채권은 브로드컴이 보증하고, 180억달러 규모 후순위 채권은 앤트로픽이 지급하는 임대료를 담보로 한다. 후순위 채권은 신용평가사 크롤본드레이팅에이전시(KBRA)와 모닝스타 DBRS로부터 투기등급인 B+를 받았다. 이는 해당 채권에 대한 평가로, 앤트로픽의 상장 후 기업 신용등급 전망과는 구분된다.

앤트로픽은 IPO 투자설명서에서 2045년까지 컴퓨팅 인프라에 8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약정을 공개했다. 상장으로 자본을 확충하더라도 장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회사채 발행 등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넥스트증권, 김승연 대표 재선임

리테일 사업 확대 속도



넥스트증권은 지난 10월 14일 이사회에서 김승연 대표이사(사진)의 연임을 의결했다.

2일 넥스트증권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의 새로운 임기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2년이다.

2024년 10월 첫 임기에 취임한 김 대표는 파생상품 중개 중심이던 사업 구조에 AI·영상 콘텐츠 기반 리테일 사업을 추가하는 작업을 이끌어 왔다. 새 임기에서는 리테일 서비스 출시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넥스트증권은 개인투자자 대상 리테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